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 (4) 中小企業의 育成은 韓國産業의 競爭力 強化를 위한 基盤인 바, 韓國은 中小企業에 對한 資金, 技術等の 支援을 強化하고, 日本은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等を 통한 産業技術人材의 育成과 工場運營에 對한 助言等を 한다.
- (5) 兩國間の 未來指向的인 協力關係를 構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相互理解와 信賴關係가 基礎가 되는 바, 兩國은 多様な 分野, 地域, 階層에서의 相互交流에 努力한다.
- (6) 昨年 11月 兩國 頂上에게 提出된 「韓日經濟人포럼」 報告書는 兩國의 向後 經濟協力方向을 提示하는 것이므로 이를 尊重하고 推進한다.
4. 分科會에서의 提案等에 의거, 別添事項이 合意되었다.
5. 次期會議는 來年봄, 韓國에서 開催한다.

1994年 4月 15日

韓國代表團 團長 朴 龍 學
日本代表團 團長 羽 倉 信 也

(別添)

合 意 事 項

- (1) 今年 3회에 걸친 「訪日輸出促進團」의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2) 韓國側은 對日投資誘致團을 派遣하며, 日本側은 이 促進團의 日本國內에서의 活動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의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對해 協力하는 件
- (4) 韓國側은 産業技術交流促進團을 日本에 派遣하며, 日本側은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兩國間은 技術協力增進을 위해 韓日·日韓兩經濟協會에 의한 技術提携斡旋事業을 推進하는 件
- (6) 「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의 日本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7)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兩側이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며,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8) 其他 各種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兩經濟協會의 合意下에 共同으로 推進하는 件

第 27 回 共同聲明(1995年)

第27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1995年 4月 13日, 14日 兩日間 大韓民國 濟州道 西歸浦市中文에서 韓國側으로부터는 朴龍學 團長外 127名이, 日本側으로부터는 羽倉信也 團長外 129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經過報告後 4個 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에 對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없이 承認되었다.
- (1) 第21回 韓日·日韓貿易委員會(1994年 6月 日本, 東京)
- (2) 第20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 (1994年 6月 日本, 横浜)
- (3) 第13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1995年 3月 日本, 東京)
- (4)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第4回 委員會
會議는 1995年 11월에 서울에서 開催
豫定)
2. 于先 兩國關係의 基本的인 立場에 對해
다음과 같이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 韓日國交正常化 30周年이 되는 해에,
WTO라고 하는 보다 廣範圍한 自由貿易
을 推進하는 體制가 發足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東아시아地域은 世界經濟의 成長
센타로서 눈부신 經濟規模의 擴大를 持續
하고 있다. 그 先發國인 韓日兩國은 市場
開放과 産業協力에 加一層의 努力을 傾注
하고, 多樣한 協力을 글로벌하게 展開하
면서 「前進을 위한 파트너」로서 아시아
및 世界經濟의 發展에 寄與해 가는 것이
必要하다고 認識하였다.
3. 兩國은 基調講演 및 貿易關聯, 産業協力,
交流增進等 各分科會에서의 意見發表 및
交換을 통해 아래 事項에 對해서 認識을
같이 하였다.
- (1) 韓國의 OECD加入實現에 의해, 아시
아의 先進國으로서 韓日兩國은 APEC
發展에 對한 協力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課題를 共有하고 새로운 韓日關
係 構築을 指向한다. 그리고 擴大傾向
에 있는 兩國間의 貿易不均衡은 擴大
均衡의 方向으로 改善을 指向해야 하
며, 이를 위해 韓國側에서는 産業構造
의 改善과 技術開發力의 向上등에 從
前 以上の 努力이 要求되며, 日本側에
서도 加一層의 輸入擴大가 必要하다.
- (2) 超門高局面에 對한 對應策의 하나로
日本은 規制緩和와 市場開放의 極大化

를 기하는 한편, 그 企業活動은 海外
로부터의 調達을 包含한 海外展開를
더욱 推進하게 될 것이다. 競爭力의
強化를 향한 韓國의 投資誘致와, 企業
間 産業技術協力關係의 推進이라는 目
標는 日本側의 이러한 흐름과 方向을
같이하는 것이며, 加一層의 成果가 期
待된다.

韓國으로부터 日本에 對한 企業進出
도 向後 活發化되고 兩國間의 紐帶는
더욱 深化될 것이다.

- (3) 韓日은 서로 善隣協力を 통한 共同繁
榮을 指向하는 좋은 競爭相對인 同時
에 秩序있는 市場을 創造하고 育成하
는 파트너로서, 아시아地域을 비롯한
第3國에 對한 産業協力の 길을 摸索하
는 것이 重要한 課題가 되고 있다. 經
濟論理만이 아니라 相對國의 NEEDS
와 文化에 對한 理解를 隨伴한 國際貢
獻의 場에서 韓日兩國은 더한층 協力
을 推進한다.
- (4) 中小部品産業의 育成은 韓國産業의 競
爭力 基盤強化에 不可缺하며, 韓國은
中小企業에 對해 繼續해서 資金, 技術
등의 支援을 強化하고, 日本은 産業技
術協力財團의 事業등을 통하여 技術人
材의 育成과 工場運營에 對한 助言등
에 協力한다.
- (5) WTO, OECD라고 하는 새로운 테두리
속에서 韓日間의 協力과 補完體制는
더욱 重要하게 되었다. 相互理解와 信
賴關係가 그 基礎이며 이를 위해 여러
分野, 地域, 階層에서의 폭넓은, 특히
젊은 세대간의 相互交流를 더한층 增
進하는 努力이 必要하다.
- (6) 1993年 11月 兩國頂上에 提出된 「韓日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 經濟人포럼」報告書는 兩國의 向後 經濟協力の 方向을 提示한 것으로서 尊重하고 이를 強力하게 推進한다.
4. 各分科會에서의 提案等에 依據,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次期會議는 來年봄, 日本에서 開催한다.

1995年 4月 14日

韓國代表團 團長 朴 龍 學
日本代表團 團長 羽倉 信也

(別添)

合 意 事 項

- (1) 今年 2회의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2) 韓國側은 對日投資誘致團을 派遣하며,

- 日本側은 이 誘致團의 日本國內에서의 活動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의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對해 協力하는 件
- (4) 韓國側은 産業技術交流促進團을 日本에 派遣하며, 日本側은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兩國間の 技術協力增進을 爲해 韓日·日韓兩經濟協會에 의한 技術提携斡旋事業을 推進하는 件
- (6) 「日韓經濟人交流促進團」의 韓國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7) 「青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兩國의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며,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8) 其他 各種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兩經濟協會 合意下에 共同으로 推進하는 件

第28回 共同聲明(1996年)

第28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는 1996年 4月 18日, 19日 兩日間 日本新潟市에서 韓國側으로부터는 朴龍學 團長外 125名이, 日本側으로부터는 羽倉信也 團長外 126名이 參席하여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經過報告 後 4個 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意없이 承認되었다.
- (1) 第22回 韓日·日韓貿易委員會
(1995年 6月 韓國, 濟州道)
- (2) 第21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1995年 5月 韓國, 濟州道)

- (3) 第14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1996年 3月 韓國, 서울)
- (4) 第 4回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
(1996年 2月 韓國, 서울)
2. 먼저 兩國의 基本的인 立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아직도 世界에서는 民族과 宗教의 對立에 기인된 분쟁과 國家間的 政治的 課題 處理를 둘러싼 緊張關係를 보이고 있는 한편, 經濟面에서는 글로벌化·보더리스(borderless)化가 進行되어『無限競爭(MEGA COMPETITION)時代』에 돌입하고 있다.

『세계의 성장센터』라고 불리우는 東아시아地域의 經濟는 生産據點으로서도, 消費市場으로서도 더욱 확대되면서 그 다이나미즘을 내외에 발휘하고 있다. 그 先發國인 韓日 兩國은 『개방된 地域主義』를 지향하는 APEC의 핵심으로서 그 役割을 遂行함으로써, 世界의 經濟發展에 寄與해 갈 必要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3. 兩國은 基調演說 및 貿易關聯, 産業協力, 交流增進의 各分科會에서 意見發表 및 交換을 통해, 다음 事項에 대해 理解를 같이 하였다.

- (1) 『活力있는 글로벌國家』를 지향하는 日本과, OECD加盟을 계기로 『21世紀의 一流國家로 가는 基盤』을 構築中인 韓國, 두나라 모두에게 規制緩和와 市場開放은 스스로의 將來를 개척하기 위한 課題이다. 兩國 企業은 이에 積極的으로 대응해 가면서 새로운 事業 전개를 꾀하고 이러한 흐름을 선도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 (2) 兩國 企業의 水平的·補完的인 分業體制와 提携關係, 韓國企業과 製品의 積極的인 日本市場 進出 等 韓日 兩國의 經濟關係는 對等한 同伴者로서의 실태가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과거 어느때보다도 『市場經濟論理』가 기능을 발휘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兩國의 官民이 다함께 노력하고 있는 韓日 貿易收支改善의 課題는, 이러한 추세 등에 의해 資本과 技術의 相互移動의 活性化, 韓國의 『資本財産』의 강화와 對日輸出 增加 等の 成果를 거

두어 가면서 兩國 貿易의 擴大均衡에 의해 實現하도록 相互 努力한다.

- (3) 中小部品産業 및 素材産業의 育成은 韓國産業政策의 중요한 課題의 하나인 바, 技術인력의 育成·經營管理技法의 보급 등을 통해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의 활동이 착실한 成果를 거두고 있다. 兩國 官民의 지원을 받아 財團 活動의 加一層의 充實化가 要望된다.
- (4) 高度情報化社會에 대한 積極的인 對應과 技術의 國際標準化에 대한 이니셔티브, 地域經濟圈의 充實化와 擴大, 地球環境保全을 위한 努力, 物流의 國際化 등 個別 企業레벨을 넘어선 차원에서, 民間主導로 政治와 外交를 主導해야 할 분야가 많다.
韓日 兩國은 아시아, 나아가서는 世界의 政治的 安定과 經濟發展에 공헌해 가는데 있어서 相互 補完的인 協力, 創造力과 實行力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要求된다.
- (5) 兩國 基調演說의 精神을 살려 今後 實踐 可能的인 것을 兩國 合意下에 점차 實現하도록 努力한다
4. 各分科會에서의 提案 등에 依據,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는 來年 봄, 韓國에서 開催한다.

1996年 4月 19日

韓國側代表團 團長 朴 龍 學
日本側代表團 團長 羽倉信也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別 添〉

合 意 事 項

- (1) 今年 3회의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2) 韓國에서 派遣되는 對日投資誘致團의 日本內 活動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의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대해 協力하는 件
- (4) 兩國間 技術協力增進을 위해 韓日・日

韓 兩經濟協會에 의한 技術提携斡旋 事業을 推進하는 件

- (5) 「韓日經濟人交流促進團」의 日本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6)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며,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7) 其他 各種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 兩經濟協會 合意下에 共同으로 推進하는 件

第29回 共同聲明(1997年)

第29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은 1997年 4月 10日, 11日 兩日間 大韓民國 釜山廣域市에서 韓國側으로부터는 朴龍學 團長外 117名이, 日本側으로부터는 羽倉信也 團長外 125名이 參席하여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經過報告 後 4個 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意없이 承認되었다.
 - (1) 第23回 韓日・日韓貿易投資委員會 (1996年 6月 日本, 仙台)
 - (2) 第22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1996年 6月 日本, 東京)
 - (3) 第15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1997年 3月 日本, 東京)
 - (4) 第 5回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 (1997年 日本에서 開催豫定)
2. 먼저 兩國 經濟人의 基本的인 立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現在 世界經濟가 글로벌化・보더리스化가 加速되면서 歷史的인 轉換期를 맞고 있는 가운데, 世界經濟의 成長軸은 아시아地域으로 移轉되어 바야흐로 아시아의 時代가 到來하고 있다.

OECD의 멤버로서 이 地域의 先發國인 韓日 兩國은 市場開放과 産業協力에 加一層 努力을 傾注하는 한편, 아시아地域을 무대로 한 韓日 兩國의 成功的인 經濟協力は 悠久한 人類史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의 世紀」를 맞이함에 있어 絶對적으로 重要하다는데 認識을 같이 하였다.

3. 兩國은 基調演說 및 貿易關聯, 産業協力, 交流增進의 各分科會에서 意見發表 및 交換을 통해, 다음 事項에 대해 理解를 같이 하였다.
 - (1) 世界經濟의 大競爭時代를 맞이하여 兩國 공히 金融시스템의 改革을 위시한 構造改革 및 規制緩和・撤廢, 高費

用構造로부터의 脫皮에 대한 挑戰이 進行되고 있고, 이는 스스로의 새로운 活路를 開拓기 위한 必然的인 課題임을 認識하여 兩國 企業은 이에 積極的으로 對應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 (2) 擴大 傾向에 있는 兩國間의 貿易不均衡은 擴大均衡의 方向으로 改善을 持續해야 하며, 이를 위해 韓國側에서는 素材·資本財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對日輸出 擴大 等に 倍前의 努力이 要求되며, 日本側도 技術 移轉, 輸入擴大, 市場開放 促進에 協力한다.
- (3) 兩國間의 投資·技術協力を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兩國 企業間의 相互信賴와 協力關係의 造成이 그 基盤이 된다. 最近 貿易·産業構造 調整과 協力の 場이 兩國 次元에서 아시아 域內로 擴大되고 있는 點에 비추어 韓國은 投資環境을 改善하며, 日本은 韓國의 投資誘致와 産業技術力 向上에 加一層 努力한다.
- (4) 新事業의 活性化를 위한 制度 改善과 技術·製品·部品の 標準化, 物流 條件의 改善, 地域 經濟圈의 充實화와 交流 擴大, 地球環境 保全에 대한 對應, 에너지 開發과 確保, 월드 컵 共同開催 等 個別企業 레벨을 넘어선 次元에서 우리 民間 經濟人들이 主導해야 할 分野가 많다. 韓日 兩國은 世界, 특히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安定과 經濟的 發展에 貢獻하는데 있어서 相互補完的인 協力, 創造力과 實行力을 具體的으로 推進해 나가기로 한다.
- (5) 다가오는 21世紀 脫國境化·多元化

時代에 걸맞는 새로운 協力關係를 構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相互理解와 信賴關係가 基礎가 되는 바, 兩國은 이 合同委員會 會議를 비롯하여 多樣한 分野, 地域, 階層에서의 交流와 成果의 蓄積을 더 한층 增進하는 努力이 必要하다.

4. 各分科會에서의 提案 등에 依據,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는 來年 봄, 日本에서 開催 한다.

1997年 4月 11日

韓國側代表團 團長 朴 龍 學
日本側代表團 團長 羽倉信也

〈別 添〉

合 意 事 項

- (1) 今年 2회의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2) 韓國에서 派遣되는 對日投資誘致團의 日本內 活動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의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대해 協力하는 件
- (4) 兩國間 技術協力增進을 위해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에 의한 技術提携幹旋 事業을 推進하는 件
- (5) 「日韓經濟人交流促進團」의 韓國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6)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며,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7) 其他 各種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 兩經濟協會 合意下에 共同으로 推進하는 件

第30回 共同聲明(1998年)

第30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는 1998年 4月 16日, 17日 兩日間 日本 宮崎市에서 韓國側으로부터는 金相廈 團長外 123名이, 日本側으로부터는 藤村正哉 團長外 115名과 現地代表 40名이 參席하여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一般經過報告 後 4個 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없이 諒解되었다.

(1) 第24回 韓日・日韓貿易投資委員會 (1997年 9月 韓國, 서울)

(2) 第23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1997年 5月 韓國, 서울)

(3) 第16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1998年 3月 韓國, 서울)

(4) 第 5回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 (1998年 4月, 報告書 發表)

2. 먼저 兩國 經濟人들의 基本的인 立場에 대하여, 아래 內容에 있어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90年代 初에 시작된 日本의 景氣沈滯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이를 本格的인 회복 軌道로 복귀시키는 것이, 日本뿐 아니라, 아시아 經濟에 대해서도 최대의 貢獻이 된다. 이를 위해, 日本은 金融改革을 중심으로한 構造改革을 추진하여, 將來에 대한 確信을 되찾지 않으면 안된다.

아시아의 通貨・金融危機는 韓國에도 어려운 試鍊을 가져왔다. IMF와의 合意에 따라, 韓國은 金大中 새 大統領 領導下에 舉國一致體制로 당면한 危機를 극복함과 아울러, 拔本的인 構造改革을 통하여 經濟의 活力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經濟의 글로벌化 時代에 그 주역은 바로 企業이다. 自國의 經濟를 活性化시키고, 아시아와 世界에 대한 責任을 다하기 위하여 市場原理에 투철한 兩國 經濟人들의 의견한 行動力

이 지금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3. 基調演說 및 貿易關聯, 産業協力, 交流增進 등 각 分科會에서의 意見發表 및 意見交換을 통해 現在의 危機狀況을 극복하고, 아시아 經濟의 재건을 先導하기 위하여, 兩國은 종전보다 더욱 긴밀한 協力關係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음 事項에 理解를 함께 하였다.

(1) 外國資本의 積極의이고도 長期的인 도입은 韓國經濟의 再建을 촉진시키는 가장 效果的인 手段 中の 하나이다. 世界에서 가장 投資하기 쉬운 매력적인 나라의 하나가 되기를 지향하는 韓國은, 이를 위해 최대한으로 環境을 정비하는 한편, 日本側은 그러한 努力을 평가하여 投資 促進에 努力하는 同時에 金融面에서도 韓國에 대한 支援이 必要하다.

5月 訪韓 豫定인, 日本의 官民合同投資環境調査團(團長: 藤村正哉 日韓經濟協會 會長)은 새 政權 出帆後의 韓國體制의 큰 進전을 확인하는 최초의 공식 訪問이며, 兩國 官民이 一體가 된 현재의 시기적 利點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成果를 올리는 것이 期待되고 있다.

(2) 基盤産業(Supporting Industry) 育成과 技術開發力 強化는, 對日貿易 不均衡問題의 개선뿐만 아니라, 韓國의 産業構造 高度化와 競爭力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長期的 課題이다. 兩國 企業차원에서의 戰略的提携關係가 글로벌經濟의 네트워크와 經濟論理의 軌道위에서 다양화하면서 進전되고 있으며, 技術開發力 強化를 위한 韓國企業의 노력을 보

완할 수 있는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의 5년간의 활동은 1,500名, 100個社에 달하는 技術人材育成事業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점차 그 성과가 나타나는 時期에 이르렀다.

- (3) 日本市場에 대한 Access 改善을 포함한 日本의 輸入擴大 努力, 아시아 각국을 통한 貿易과 投資 自由化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 아시아 지역에 金融協力機構를 개설하는 구상, 나아가서는 東北아시아의 韓·中·日 3개국 協力體制를 環黃海經濟圈이라는 형태로 구축하는 구상등 활발한 提案들이 나왔으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 (4) 30年間に 걸친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의 축적은 兩國의 經濟發展을 담당해 온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意見과 理解, 적극적인 協力과 行動의 歷史이다. 우리는 하나의 단락을 짓는 이 해가 兩國이 동시에 경험하는 고된 시련의 해가 되었다는 점을 깊이 가슴에 새겨, 그 傳統을 이어받아, 글로벌화 時代에 걸맞는 韓日經濟關係를 상징하는 「韓日·日韓經濟人會議」의 보다 開放적이고 활달한 雰囲気가 넘치는 새로운 傳統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4. 各分科會에서의 提案 등에 관해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는 來年 韓國에서 開催한다.

1998年 4月 17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金 相 廈
日本側 代表團 團長 藤村正哉

〈別 添〉

合 意 事 項

- (1) 今年 3차례에 걸친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2) 兩國의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대해 協力하는 件
- (3) 兩國間 産業技術協力增進을 위해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에 의한 技術提携 斡旋事業을 推進하는 件
- (4) 「日韓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의 韓國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고,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6) 經濟人會議가 總括하는 專門委員會와 交流事業, 其他 運營方法 等에 대하여 時代의 要請에 따라 이를 再點檢하여, 改革 改善하는 方案을 作成하는 件
- (7) 其他 各種 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 兩經濟協會 合意下에 推進하는 件

第31回 共同聲明(1999年)

第31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는 1999年 4月 8日, 9日 兩日間 大韓民國 서울에서 韓

國側으로부터는 金相廈 團長外 134名이, 日本側으로부터는 藤村正哉 團長外 125名이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參席하여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一般經過報告 後 4個 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없이 諒解되었다.

(1) 第25回 韓日・日韓貿易投資委員會
(1998年 11月 日本 東京)

(2) 第24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1999年 2月 日本 東京)

(3) 第16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1999年 3月 日本 東京)

(4) 第 6回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兩委員長 往復書簡으로 合意確認)

2. 먼저, 이번 會議에서 兩國 經濟人들은 兩國 經濟와 兩國關係를 둘러싼 諸般問題에 관해 다음과 같이 基本認識을 함께 하였다.

韓國經濟는 昨年 1年間 企業, 金融, 勞動, 公共의 4個 部門에서 構造調整과 改革을 斷行하고 彈力的인 財政金融政策을 驅使함으로써 危機狀況에서 徐徐히 벗어나면서 國際社會의 信認度가 크게 向上되었다.

한편 日本經濟는 公共投資, 減稅 等の 景氣浮揚策, 金融機關에 대한 公的資金投入과 企業의 構造調整努力 等으로 長期不況에서 脫皮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現在 兩國는 實物經濟가 多少 回復되고 있으나 同時에 金融機關을 包含한 企業의 過當競爭體質에서 비롯된 過剩債務, 過剩設備, 過剩人力調整과 企業支配構造(Corporate governance)의 改善 等 어려운 課題가 山積해 있다.

兩國이 이러한 構造的 問題를 解決하여 自律成長軌道에 進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政府主導의 構造改革만이 아

니고 産業과 企業이 從來의 延長線上的 改善・改良이 아닌 보다 創造的이고 다이내믹한 競爭力을 創造하고 國境을 超越한 眞正한 企業間 競爭과 協力에 積極 同參해야 한다.

IMF體制 以後의 日本의 一連의 對韓 金融支援, 兩國頂上의 相互訪問을 비롯한 兩國 政府 高位級의 協調와 이를 위한 兩國 企業人들의 環境整備 努力은 過去에 볼 수 없을 정도로 刮目한 것이며, 이러한 兩國間에 造成된 善隣友好關係가 아시아의 再生, 東아시아의 安定과 發展으로 具體化되기 위해서는 우선 兩國間の 자유롭고 開放된 經濟活動을 制約해 온 各種의 潛在的인 障礙要因을 果敢히 除去하기 위한 政府와 民間의 努力이 加一層 要請된다.

同時에 새로운 millennium을 맞이하면서 아시아의 正當한 主張이 世界的 去來規範(Global standard)에 公正하게 反映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시아經濟共同體 形成이라는 遠大한 目標을 향해 韓日 兩國이 지금 以上으로 緊密하게 相互協調해야 한다.

3. 基調演說, 貿易關聯, 産業協力 및 交流增進 等 各 分科會에서의 意見發表와 討論을 통해 兩國는 現在의 構造改革을 加速化함과 同時에 이에 따른 弊害를 極小化하기 위해 새로운 分野에 果敢히 挑戰하는 經營姿勢와 이를 可能케 하는 兩國 固有의 보다 柔軟한 經營시스템을 構築, 相互 切磋琢磨하는 關係로 前進해야 한다는 것을 確認하고 다음과 같은 事項에 理解를 같이 했다.

(1) 市場經濟體制아래 競爭力을 提高하는 責任은 어디까지나 民間에 있으며 자

유로운 활동을妨害하는 既存의 물이나 制度는 果敢하게 撤廢함으로써 글로벌라이제이션에 對應하는 한편 消費者 保護, 弱者救濟, 公正競爭이 可能하도록 民主主義와의 調和가 可能的 體制를 整備해 가야 한다. 同時에 經營에 대한 責任과 規律이 그 어느 때 보다 要請된다. 아시아의 風土와 傳統 속에서 이러한 市場經濟의 改革이 어떠한 創造的인 아시아모델을 實現할 수 있을 것인지 兩國 經濟人들은 자유로운 論議에 同參할 때이다.

- (2) 世界的으로 擴散되고 있는 地域統合의 움직임 속에서 最近 아시아危機를 함께 經驗하고 있는 韓日 兩國이 아시아域內協力を 한층 強化하는 手段으로서 自由貿易協定の 必要性이 急速히 提起되고 있다. 이미 兩國間 投資協定은 조만간 實現될 可能性이 높고 自由貿易協定은 短期的으로는 規制와 保護障壁이 높은 業種일수록 摩擦이 豫想되지만 中長期的으로는 相互利益을 확보해 줄 것이다. 今年 3月, 韓日首腦會談時 合意된 「經濟 Agenda 21」은 將來의 自由貿易協定の 可能性을 염두에 두면서 投資協定, 租稅條約, 基準·認證 및 知的 所有權 等の 分野에 대해서 兩國間 經濟活動의 當面한 障害를 除去해 가는 것을 確認한 것이지만, 同時에 이것은 兩國이 아시아經濟의 再生等 共通의 課題에 같은 視線으로 對處하고자하는 體制構築을 指向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經濟人은 스스로의 積極的인 行動으로 兩國 政府의 眞摯한 努力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 (3) 最近 韓國은 從來의 外資 規制에서 積極的인 外資誘致로 一大轉換을 試圖하여 各種 인센티브를 擴大하고 支援體制를 強化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歐美의 對韓投資가 急速히 擴大되고 있다. 日本은 景氣後退로 體力이 弱화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M&A를 비롯한 對韓 直接投資가 增加하고, 韓日·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을 中心으로 서포팅 인더스트리의 技術人力養成 協力 等の 成果를 着實히 蓄積해 오고 있다. 앞으로 韓國은 韓國企業固有의 經營戰略, 商慣行, 法, 制度 等の 國際的 調和의 어려움을 克服하고 日本은 그 努力을 評價하고 韓日官民合同投資促進協議會 等を 통해서 投資의 促進에 努力한다.
- (4) 兩國의 業界가 構造改革과 産業再編을 實施해 나갈 때, 現在와 같이 自國內의 業界와 設備만을 對象으로 할 것이 아니라 國際競爭力의 視點에서 國境을 超越한 business alliance의 構築을 圖謀하고, 戰略的效果를 達成한다는 새로운 次元에서의 對應이 政府의 支援을 包含해서 必要하다.
4. 各 分科會에서의 提案 等に 關해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은 來年 日本에서 開催한다.

1999年 4月 9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金 相 廈
日本側 代表團 團長 藤村正哉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別 添〉

合 意 事 項

- (1) 今年 3차례에 걸친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2) 兩國의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에 대해 協力하는 件
- (3) 「韓日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의 日本 派

- 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4)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派遣하고,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産業貿易會議」開催에 協力하는 件
 - (6) APEC投資博覽會 開催에 대해 協力하는 件
 - (7) 其他 各種 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 兩經濟協會 合意下에 推進하는 件

第32回 共同聲明(2000年)

第32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는 2000年 6月 1日, 2日의 兩日間 日本國 東京都에서 韓國側에서는 金相廈 團長 外 148名이, 日本側에서는 藤村 正哉 團長 外 137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書面으로 一般經過報告, 貿易投資委員會・機械工業委員會・産業一般委員會의 세 專門委員會를 統合하여 새로 發足한 産業貿易會議 및 其他 會議의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意 없이 報告를 마쳤다.
 - (1) 第1回 韓日・日韓産業貿易會議 (1999年 10月, 日本・千葉)
 - (2) 第10回 韓日・日韓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 會議 (1999年 11月, 日本・福岡)
 - (3) 第18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會議 (2000年 3月, 韓國・서울)
2. 먼저 基調演說 등을 통해 兩國의 經濟人은 兩國經濟와 兩國關係에 대해 다음과 같은 事項에서 基本認識의 一致를 보았다.

日本經濟는 長期間의 景氣沈滯에 대해

서 稅制・法制・經濟運營・企業經營 등 다양한 分野에서, 官民 모두가 構造改革 努力을 持續해 온 結果, 이제 景氣回復의 움직임이 鮮明해지고 있다. 民需主導의 自律回復軌道로의 復歸를 確實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民間의 主體的 努力이 大前提가 되고, 企業은 지금이야말로 企業家 精神을 發揮하여 雇用을 擴大하고 經濟新生을 리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韓國經濟는 97年 金融危機 以後, 金融機關의 統廢合을 비롯한 시스템改革, 企業經營의 改善과 透明性の 確保, 規制의 緩和・撤廢 등 官民合同이 構造改革의 努力을 한 結果, 消費・投資・輸出이 急速히 回復되어 本格的인 回復軌道에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過剩設備 등 根本的인 原因解決의 努力이 必要하다.

今年 6月 中旬으로 豫定된 歷史的인 南北頂上會談은 向後 日本과 中國을 包含

한 東北아시아經濟圈의 展開에도 큰 影響을 미칠 것이다. 이 經濟圈안에서 보다 效率이 높은 分業構造를 追求하고 디지털·네트워크經濟時代에 걸맞는 새로운 協力方向을 摸索하는 것은 우리 經濟人의 目標이다.

東아시아地域의 連帶와 協力の 先鋒이 될 수 있는 韓日自由貿易協定 構想이 將來 實現될 것을 상정해 投資協定交渉 등 그 基礎가 될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兩國政府의 努力이 結實을 맺을 수 있도록 實物經濟를 活絡시키고 있는 兩國의 經濟人들도 協調과 努力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兩國企業은 글로벌한 事業展開을 꾀하는데 있어, 보다 폭넓은 多國間關係 속에서 兩國關係를 摸索하며, 貿易과 投資의 擴大, 그리고 自由化의 促進, 部品·素材産業 育成의 支援 등 兩國間의 課題를 둘러싼 成果와 經驗을 살려가면서, 특히 東南아시아 各國의 經濟體質을 加一層 強化시키는데 率先해서 貢獻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3. 各 分科會에서의 意見發表와 討論을 통해, 새로운 千年을 맞아 더욱 激變하는 世界經濟에 對應해야 할 兩國 經濟人들은 다음 事項에서 意見一致를 보았다.

- (1) 兩國 固有의 文化를 서로 尊重하여 傳統과 價值觀의 差異에 대해서도, 이를 냉정히 認識한 後 보다 普遍的인 基準이나 物과의 整合性 確保에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認識의 共有, 共通의 價值觀의 形成, 兩國의 오피니언리더들의 相互理解와 信賴關係의 造成은 直接投資나 새로운 business alliance의 擴大에도 필수적인 스텝이다.

- (2) 인터넷의 發達, IT-eB(情報技術과 電子商去來)時代의 到來은 우리의 思考·制度·慣行·組織의 變革을 통해서 經濟, 社會, 文化 全般에 큰 變革을 가져왔으며, 豫測을 불허할 程度로 急速한 成長을 實現하고 있다. 向後 兩國 經濟成長의 KEY가 되는 것은 IT(情報技術)이고, 이것이가져올 無限한 비즈니스 チャン스를 兩國 企業이 더욱 活用해 나가기 위해서는 兩國의 社會全般에 걸친 信賴關係의 形成이 必要하다는 점을 우리는 共通으로 認識하고자 한다.

- (3) 다시 增加勢로 돌아선 韓國의 對日 貿易赤字와 關聯하여, 그 對策으로서 전부터 實施되어온 韓國의 部品·素材生産部門, 즉 supporting industry와 그 實質의인 基盤이 되는 中小企業部門의 強化·育成策은 知識産業·소프트産業의 時代에 들어서도 여전히 가장 重要한 課題中の 하나이다.

韓日·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의 活動도 이미 8年째에 접어들어 産業人力育成事業, 生産性向上을 위한 現場指導事業 등을 活潑히 實施해오고 있으며, 韓國部品産業의 技術레벨과 競爭力의 向上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施策의 有效性을 檢證해 나가면서 重要項目에 대한 事業의 집중과 資金活用の 效率化를 더욱 圖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이번 會議에서 兩國 共通의 具體的 테마로써 地球次元에서의 對應을 必要로 하는 環境問題가 報告되어 兩國이 協調하여 東아시아地域의 環境保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全에 對應할 必要가 있다는 것에 認識을 같이 하였다. 兩國은 蓄積된 經驗과 技術을 活用하여 競爭優位를 確保하면서 世界의 環境保全에 寄與할 수 있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 (5) 兩國間의 地域間交流를 더욱 擴大하는 것은 經濟 및 文化交流를 加一層 活性化하고, 나아가서는 近隣 東北 아시아地域의 經濟活性化와 모델經濟圈의 形成을 가능케 할 것이다.
4. 各 分科會에서의 提案 等에 關해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는 來年 韓國에서 開催한다.

2000年 6月 2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金相廈
日本側 代表團 團長 藤村正哉

〈別 添〉

合 意 事 項

- (1) 「産業貿易會議」開催에 協力하는 件
- (2)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에 協力하는 件
- (4) 「韓日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의 韓國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派遣하고,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6) 兩國 「페스티벌」事業에 協力하는 件
- (7) 其他 韓日·日韓 兩經濟協會 合意下에 推進하는 事業에 協力하는 件

第33回 共同聲明(2001年)

第33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는 2001年 4月 12日, 13日의 兩日間 大韓民國 光州廣域市에서 韓國側에서는 金相廈 團長 外 122名이, 日本側에서는 藤村 正哉 團長 外 124名이, 그리고 光州地域 企業人 30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書面으로 一般經過報告, 第2回 韓日産業貿易會議 및 其他 會議의 活動狀況에 對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意 없이 諒解되었다.

(1) 第2回 韓日·日韓産業貿易會議

(2000年 11月, 韓國 서울)

- (2) 第11回 韓日·日韓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 會議 (2000年 10月, 韓國 서울)
- (3) 第19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會議 (2001年 2月, 日本 東京)
2. 먼저 基調演說 等を 통해 兩國의 經濟人은 兩國經濟와 兩國關係에 對해 다음과 같은 基本認識의 一致를 보았다.
外換危機 以後 비교적 빠른 回復勢를 보였던 韓國經濟는 企業不實處理와 金融圈 構造調整의 遲延 等に 의한 景氣의 冷却, 그리고 國際原資材 價格의 急騰과 韓

國 主力輸出商品의 價格下落이 겹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政府의 積極의인 景氣回復 努力으로 消費心理가 回復되는 등 景氣展望이 다소 好轉되고는 있지만 世界 主要國들의 不透明한 經濟狀況으로 對外依存度가 높은 韓國經濟의 展望은 樂觀을 不許하고 있다.

한편 日本經濟도 거품經濟의 崩壞 以後 오랫동안 深刻한 不況이 持續되고 있다. 글로벌化, IT革命의 世界的인 潮流속에서 構造調整에 必死的인 努力을 傾注해 왔지만, 金融機關이 안고 있는 不實債權問題, 消費의 不振 등 本格的인 回復까지는 아직 時間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兩國은 現在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克服하고 다시 本格的인 成長軌道에 進入할 수 있는 充分한 力量과 經驗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徹底한 構造調整과 改革의 推進을 통해서 經濟의 體質을 根本的으로 變化시키고, 韓日 兩國의 長點을 살려 産業 및 交易構造를 相互補完의인 것으로 改編시켜나가야 한다.

韓日 兩國은 21世紀에 아시아經濟의 리더로서 뿐만 아니라 世界經濟의 中心役割을 遂行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協力關係가 構築되어야 한다. 兩國은 積極的인 産業構造調整과 産業協力으로 水平分業 등을 實現하고 安定的인 競爭의 協力體制를 이룩해야 한다. EU에서의 獨逸과 프랑스의 經濟關係는 韓日 兩國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며, 이는 東아시아 國家들이 向後 나아가야 할 協力 方向을 提示해 주고 있다.

向後 世界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나갈 IT와 e-Business 革命에 兩國은 積極

對處해 나가야하며 共同努力이 매우 重要하다. 이를 위해 昨年 9月 兩國 頂上會談에서 合意된 ‘韓日 IT協力 이니셔티브’를 具體化하기 위한 多樣한 協力이 民間레벨에서 推進되어야 한다.

世界經濟의 地域經濟統合의 增加趨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아시아地域의 連帶와 協力の 先鋒이 될 수 있도록 韓日 FTA 實現을 향해 持續的인 努力이 要求된다. 이를 위해서는 兩國에 既設置된 ‘韓日 FTA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協定締結이 가져올 否定的인 面을 極小化하고 肯定的인 效果를 極大化시킬 수 있는 方向과 對策이 마련될 수 있도록 兩國 經濟人이 智慧를 모아야 한다.

3. 各 分科會, 全體會議에서의 意見發表와 討論을 통해 兩國 經濟人들은 다음 事項에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1) IT産業, 電子商去來 등 인터넷을 活用한 事業은 向後 그 規模가 爆發的으로 擴大될 것이며, 企業經營, 個人生活, 中央과 地方政府의 技能 및 行政서비스 등을 根本的으로 바꾸어 놓게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時代로의 圓만한 進入을 위해서는 政府의 積極的인 規制緩和, 通信코스트의 節減等 인프라擴充, 리스크 防止를 위한 各種制度의 改善 등 環境의 整備가 必要하며, 이를 위한 兩國間 協力の 餘地는 크다.

(2) 國際化의 進展으로 全世界는 國境없는 無限競爭의 時代로 突入했다. 이제 政府는 自由롭고 透明하며 公正한 市場을 實現하고 企業이 國際的으로 同等하게 競爭할 수 있는 環境整備를 徹底히 해야 하며, 企業은 自律과 自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己責任의 原則下에 自由스럽고 公正한 競爭을 해나가야 한다. 글로벌化에 對備하기 위한 韓日 兩國企業의 戰略的인 提携는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相互 國際競爭力의 強化에 寄與할 것이다. 또한 向後 兩國의 金融서비스分野에서의 多樣한 協力도 必要할 것이다.

- (3) 部品·素材産業은 構造調整期에 있는 韓日 兩國 製造業의 競爭力을 左右할 것이며, 이 分野의 知識·經驗은 兩國이 繼續 갖고 가야 할 貴重한 財産이다. 最近 이 分野에서 兩國의 協力事例가 增加하고 있는 점을 評價하고, 協力이 더욱 強化될 수 있도록 各種 制度改善 等 環境整備에 兩側은 더욱 努力해야 한다. 이와 함께 韓日·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이 遂行하고 있는 韓國 서포팅인더스트리에 대한 各種 支援活動이 더욱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兩國 經濟界는 協力해야 한다.
- (4) 韓日 地域間 交流를 先導的으로 遂行하고 있는 후쿠오카(福岡)縣의 事例와 오랜 經驗은 向後 地域間 交流를 推進코자 하는 他地域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다. 地域間 交流는 國家間 交流의 土臺이며 2002年 韓日 월드컵의 共同開催는 地域間 協力的 큰 契機를 만들어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交流가 비즈니스次元까지 擴大發展되기 위해서는 國際物流部門에 대한 인프라 擴充 等이 積極的으로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光州廣域市가 意慾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光産業育成事業, 그리고 日本側으로부터 日本資本市場의 最近의 動向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兩國 經濟人들로부터 높은 關心이 表明되었다.
4. 各 分科會 및 全體會議 等에서의 提案 等에 關係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는 來年에 日本에서 開催한다.

2001年 4月 13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金 相 廈
日本側 代表團 團長 藤村 正哉

〈別 添〉

合 意 事 項

- (1) 「産業貿易會議」開催에 協力하는 件
- (2)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에 協力하는 件
- (4) 「韓日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의 日本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의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派遣하고,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6) 「韓日·日韓交流祭」事業에 協力하는 件
- (7) 其他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의 合意下에 推進하는 事業에 協力하는 件

第34回 共同聲明(2002年)

第34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는 2002年 4月 11日, 12日の 兩日間 日本國 広島市에서, 韓國側에서는 金相廈 團長 等 138名, 日本側에서는 藤村 正哉 團長 等 137名, 그리고 広島市の 企業家 24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書面으로 一般經過報告, 第3回 韓日産業貿易會議 및 其他 會議의 活動狀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없이 承認되었다.

(1) 第3回 韓日・日韓産業貿易會議
(2001年 11月, 日本 福岡)

(2) 第12回 韓日・日韓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
會議 (2001年 10月, 日本 木更津)

(3) 第20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會議 (2002年 3月, 韓國 서울)

2. 먼저 基調演說 等を 통해 兩國 經濟人들은 世界經濟, 兩國經濟, 兩國關係에 대해 다음과 같이 基本認識의 一致를 보았다.

世界經濟는 回復過程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아직 流動的인 美國景氣의 動向, IT産業의 回復遲延 等の 理由로 將來에 대한 不安感이 存在하는 가운데, 統一貨幣 ユーロ(Euro)導入에 따른 유럽經濟圈 誕生이나 WTO加入을 契機로 中國의 經濟의 地位의 急速한 擡頭가 注目된다. 다른 한편, 多國間主義와 地域主義의 共存傾向이 顯著해 지는 한편, 保護主義의 人 움직임이 憂慮된다.

日本經濟는 設備投資와 個人消費 等이 繼續해서 低調하며 金融시스템의 不安感이 存在하는 等, 여전히 힘든 狀況下에서

政府의 強力한 不景氣對策이나 稅制改革 等 抜本的인 構造改革이 推進되고 있으며, 또한 民間의 積極的인 創意를 통해 다시금 成長軌道를 향한 努力이 繼續되고 있다.

韓國經濟는 迅速하고 強力한 構造改革이 推進되어 昨年 後半부터 內需擴大에 의해 다시 일어섰으며, 再次 成長을 향한 길을 걷기 始作했다.

韓日關係는 兩國 政府間에서 今年 3月에 「韓日投資協定」에 署名하고 自由貿易協定(FTA) 締結을 향한 「産官學共同研究會」設立에 合意하는 等, 緊密한 經濟協力의 良好한 基盤이 確立되었다. 이는 兩國의 相互投資를 活性化시키고 兩國産業間의 交流와 協力關係를 加一層 強化시키는 有效한 方案이라 생각한다. 특히 歷史的인 월드컵 共同開催를 成功시킴과 함께, 兩國 經濟人은 經濟分野에 그치지 않고 兩國國民의 親善友好가 促進되어 協力的이며 未來指向의인 關係로 昇華시켜야 한다.

3. 各 分科會, 全體會議에서의 意見發表와 討論을 통해 兩國 經濟人들은 다음 事項에 대해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1) 눈부신 經濟發展을 이룩하고 있는 中國은, 兩國企業에 있어 有望한 市場이긴 하나, 아직 解決해야 할 많은 課題를 안고 있다. 中國經濟의 急激한 浮上에 따른 東아시아 經濟環境의 急速한 變化로 인해, 韓日 兩國에 있어 向後 經濟發展에 큰 影響을 미칠 重大한 時期를 맞이하고 있다.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韓日關係를 基軸으로 삼아 韓日의 共通視點에서 中國을 再認識해 나가는 것이 可能하며 또한 必要하다. 韓日中 3國은 東아시아 經濟圈을 念頭에 두면서 하나의 市場이 아닌, 하나의 그룹으로서 能動的으로 活動을 始作할 段階에 왔다. 韓日中은 環境·에너지 問題, 知的所有權 保護, 情報化·高齡化社會 對應, 産業 및 地域協力問題 等の 共通課題를 안고 있다. 韓日中 3國은 各國關係가 特徵을 갖고 地域으로서의 一體性を 維持하며, 서로 連繫를 深化시키면서 繁榮을 追求해야 한다.

- (2) 韓日 FTA는 韓日産業協力を 더욱 擴大시킬 最善의 選擇이며, 兩國經濟나 兩國經濟關係의 活性化를 위해서도 有效한 手段이다.

韓日 FTA는 未來를 指向하는 韓日關係 全般에서 意義가 크며, 長期的으로는 東아시아를 내다보면서 21世紀의 兩國關係를 象徵하는 것으로 하루 빨리 締結되는 것이 强하게 要求된다.

WTO規則과의 整合性도 認識하여 市場開放과 輸入擴大가 兩國國民의 便益을 增進시킨다는 認識에 따라, 各種諸般問題를 克服하면서 廣範圍한 經濟的 連繫를 指向하는 包括的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意味에서 韓日 FTA는 將次 東아시아 FTA의 中心軸으로서 開放的地域主義(Open Regionalism)原則을 具現해야 할 것이며, 同時에 域外國과의 政策調整메카니즘을 통해 排他的行動에는 兩國이 共同對應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 (3) 韓日 兩國의 多様な 文化는 地域적으로 擴散되어 質的·量的으로 擴大·發展하고 있다. 그 中에서도 韓國의 3차례에 걸친 日本의 大衆文化開放은 韓日 兩國國民의 友好親善과 信賴關係를 促進하는 데 있어 肯定的인 側面이 많이 보인다. 월드컵의 成功的인 共同開催를 契機로 兩國間의 스포츠, 文化·人的交流 等を 包含한 韓日關係는 새로운 時代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今年는 「2002年 韓日 國民交流의 해」인 점을 勘案하여 兩國固有의 文化를 尊重하고 傳統的 價值觀의 相異性を 冷靜하게 認識하면서 相互理解와 信賴關係構築이 必須 不可缺少하다.

- (4) 世界의 글로벌化가 進行되는 가운데, 近年 地方自治團體 等を 中心으로 한 韓日間의 地域交流는 多様な 人的交流나 文化交流를 통해 比較的 빠른 速度로 發展하고 緊密化되고 있다. 이는 相互理解 增進과 親善友好 強化에 대단히 有益하다.

특히, 월드컵의 成功的인 韓日共同開催를 통해 兩國 地域間交流는 經濟通商交流를 包含하여 加一層 從前의 友好協力關係를 未來指向의으로 擴大, 發展시키는 努力 또한 要求되고 있다.

4. 各 分科會 및 全體會議에서의 提案 等에 關해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는 來年에 韓國에서 開催한다.

2002年 4月 12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金 相 廈
日本側 代表團 團長 藤村 正哉

〈別 添〉

合 意 事 項

- (1) 「産業貿易會議」開催에 協力하는 件
- (2)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에 協力하

는 件

- (4) 「韓日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의 日本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靑少年交流事業」으로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派遣하고,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6) 兩國 「페스티벌」事業에 協力하는 件
- (7) 其他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의 合意下에 推進하는 事業에 協力하는 件

第35回 共同聲明(2003年)

第35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는 2003年 4月 24日, 25日 兩日間 大韓民國 大邱廣域市에서 韓國側에서는 金相廈 團長 等 110名, 日本側에서는 세토 유조(瀬戸 雄三) 團長 等 105名, 그리고 大邱廣域市の 企業人 77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1. 먼저 韓日 兩側은 大邱地下鐵 火災事故로 犧牲되신 分들에 對한 깊은 哀悼의 뜻을 表하였다. 또한 日本側에서는 盧武鉉 新任大統領의 就任에 對해 慶賀의 뜻을 表하고, 新政府下에서 加一層의 韓國의 發展과 兩國의 友好關係增進에 對한 期待를 表明하였다.
2. 全體會議에서는 書面으로 一般經過報告, 第4回 韓日産業貿易會議 및 其他 會議의 活動狀況에 對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 없이 承認되었다.
 - (1) 第4回 韓日・日韓産業貿易會議 (2002年 11月, 韓國 濟州道)
 - (2) 第13回 韓日・日韓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會議 (2002年 10月, 日本 東京)

(3)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會議 (日本側 事務局은 (社)日韓經濟協會에서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으로 移管되었다.)

3. 먼저 基調演說 等を 통해 兩國 經濟人들은 世界經濟, 兩國經濟 및 兩國關係에 對해 다음과 같이 基本認識의 一致를 보았다.

世界經濟는 WTO 中心의 多角的인 自由貿易體制로의 움직임과 함께 地域經濟圈 形成이 急速히 推進되고 있으며 世界經濟의 兩大軸으로 浮上한 EU, NAFTA는 經濟統合效果의 極大化를 爲해 그 質과 規模를 擴大 深化시켜나가고 있다.

한편, 中國은 WTO加入으로 開放의 果實을 享受하고 있으며 世界 生産據點으로서의 立地를 着實하게 構築해 나가고 있다. 韓國經濟는, 積極的인 構造調整 努力으로 外換危機를 成功的으로 克服했다고는 하지만 成長潛在力의 擴充이나 企業의 競爭力 強化는 아직도 未洽한 狀態이며 公共・勞動部門의 改革 等に 對한 持續的인 推進이 必要하다.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日本經濟는, 長期 沈滯 속에서 消費, 設備投資, 住宅投資 등이 여전히不振하며 높은 失業率이 持續되고 있어 大膽하고도 體系的이며 持續的인 改革推進이 要望된다.

한편, 最近 韓日間에 있어 緊急課題로 擡頭되고 있는 韓日FTA는 兩國의 産業構造 調整 促進 및 競爭力提高를 爲한 지렛대로 積極 活用될 수 있을 것이며, 兩國의 經濟 活性化를 爲해서도 早速한 締結이 要望된다. 韓日FTA는 中長期的으로 東아시아 自由經濟圈 形成을 向해 透明하고 開放的인 統合市場을 指向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02年 韓日월드컵 共同開催의 成功은 韓日關係史에 있어서 歷史的인 轉換點이 되었으며, 兩國 經濟協力 增進을 爲한 인프라로서 文化 및 靑少年交流는 앞으로 繼續하여 積極 推進하여야 한다.

4. 各 分科會, 全體會議에서의 意見發表와 討論을 通해 兩國 經濟人들은 다음 事項에 對해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 (1) 韓日 兩國은 投資協定の 締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FTA의 早期締結을 爲한 實質的인 韓日 技術交流 및 投資協力 擴大를 爲한 土壤을 造成해 나가야 한다. 이를 爲해 韓國은 勞使關係 改善 및 持續的인 投資인프라 擴充과 政策의 一貫性 確保를 爲해 努力하고, 日本은 對韓貿易不均衡의 縮小와 産業協力 強化를 爲해 보다 前向的인 協력이 要求된다.

한편, 兩國의 投資交流 活性化를 爲한 具體的인 一例로서 準天頂 衛星(Quasi-Zenith Satellite)을 利用한 次世代 모바일 서비스를 提供하는 시스템 構築 등 情報通信技術分野, 特히 새로운 需要開發에 있어서의 韓日兩國의

民官協力에 依한 프로젝트의 實現을 爲해 協력이 必要하다는데 認識을 같이 하였다.

- (2) 韓日 兩國은 少資源國, 貿易·産業技術·人材立國 등 共通된 經濟基盤을 갖고 있다. 이들 條件을 前提로 兩國 企業들은 同等한 파트너십에 根據하여 事業의 水平·垂直分業을 圖謀하여 第3國에 對해서는 韓日 兩國이 共同으로 競爭力있는 事業構造를 構築하여 貿易·投資 등의 經濟活動을 擴大해 나가는 것이 重要하다.

- (3) 最近 中國 등 東北아시아圈의 物流市場이 急成長하고 있고, 物流業의 國際化가 加速化되고 있다. 製造技術의 革新, 販賣戰略의 多樣化에 이어 物流體制의 合理化를 通한 生産性的인 向上이 附加價値를 새로이 創出할 수 있는 第3의 利潤源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物流가 國家競爭力인 時代가 되었다. 이러한 時代的인 狀況에 따라 韓日 物流 企業間 協力は 必然的이며 兩國企業間 戰略的인 業務提携 및 物流파트너십 構築, 多國間 物流事業의 推進, 物流標準化의 共同推進 등 諸般分野에서의 協력이 要望된다.

- (4) 이러한 兩國의 貿易·投資·産業協力の 實效性을 높이기 爲해서는 民間企業을 中心으로 政府와 經濟界가 하나가 되어 FTA의 早期締結에 努力하고, 企業은 共存共榮의 Win-Win關係가 바탕이 된 信賴關係 構築에 努力해야 한다.

- (5) 韓國의 新政府의 産業政策 方向에 對한 說明, 그리고 韓日協력을 爲한 韓國 中小企業 實態調査와 中小企業에 있어서 相互補完 可能性에 關한 報告, 大邱廣

域市の投資環境에 對한 說明이 있었으며 兩國 經濟人들로부터 높은 關心이 表明되었다.

5. 各 分科會 및 全體會議에서의 提案 等に 關해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6. 다음 會議는 來年에 日本에서 開催한다.

2003年 4月 25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金 相 廈
日本側 代表團 團長 瀨戶 雄三

〈別 添〉

合 意 事 項

- (1) 「産業貿易會議」開催에 協力하는 件

- (2)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에 協力하는 件
- (4) 「韓日中堅經濟人交流미션」의 韓國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5) 「靑少年交流事業」으로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派遣하고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및 풀뿌리 交流를 통해 보다 젊은 世代의 交流推進을 檢討하는 件
- (6) 兩國의 産業基盤을 뒷받침하는 中小企業分野에서 相互 補完事業의 推進을 檢討하는 件
- (7) 其他 韓日・日韓 兩經濟協會의 合意下에 推進하는 事業에 協力하는 件

第36回 共同聲明(2004年)

第36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는 2004年 4月 22日, 23日 兩日間, 日本 나고야시(名古屋市)에서, 韓國側에서는 金相廈 團長 等 112名, 日本側에서는 세토 유조(瀨戶 雄三) 團長 等 101名, 그리고 名古屋市 企業人 33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書面에 依한 一般經過報告, 第5回 韓日産業貿易會議 및 그 외 會議의 活動狀況에 關한 報告가 있었다.
 - (1) 第5回 韓日・日韓産業貿易會議 (2003年 11月, 日本 우라야스시(浦安市))
 - (2) 第14回 韓日・日韓中堅經濟人交流미션 (2003年 9月, 서울)
... (同 交流 미션은 2003年 會議를 끝으로

解散한다)

- (3)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會議
... (同 會議는 2003年の 實務協議를 끝으로 解散한다)
2. 먼저, 基調演說 等を 통해 兩國 經濟人은 兩國 經濟 및 兩國 關係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認識을 같이 하였다.
世界經濟는 美國經濟가 回復 傾向을 보이기 始作하고, 특히 中國經濟는 繼續하여 好調勢를 持續하는 等 韓日 兩國을 둘러싼 經濟環境은 例年에 比해 한층 好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擡頭하는 中國經濟에 對한 對應은 兩國 經濟界의 共通 課題로 부각되고 있다.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日本經濟는 長期間에 걸친 不況의 터널로부터 빠져나오기 始作하여 輸出과 設備投資에 加勢하여 個人消費도 回復되는 등 漸次 本格的인 回復 基調를 맞이하고 있다. 韓國經濟는 昨年에 輸出과 內需, 業種 및 企業間的 兩極化 등으로 어려운 1年이었으나 最近 輸出 好調를 背景으로 漸進的인 回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最近의 韓日經濟關係는 中國經濟의 急速한 成長을 土臺로 글로벌 차원에서 相互 提携가 더욱 緊密해지고 있다. 同時에 東아시아 地域에서는 貿易과 投資 自由化·圓滑化는 물론 經濟統合을 向한 努力이 持續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兩國 經濟人은 높은 수준의 自由化를 목표로 하는 韓日 FTA 締結의 重要性을 充分히 認識하고 共生의 戰略的 提携를 더욱 強化하는 것이 不可缺하며 이를 위해서는 兩國 中小企業의 相互 補完 關係 構築과 젊은 世代의 人的 交流의 擴充이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하다는데 認識을 같이 하였다.

3. 各 分科會, 全體會議에서의 意見發表와 討論을 通해 兩國 經濟人은 다음 事項에 對해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 (1) 兩國 經濟人은 韓日 FTA의 締結을 念頭에 두면서 兩國 中小企業間的 活性化 方案에 對해 繼續해서 檢討하는 것은 매우 意義 있는 일이다. 特히, 오래 전부터 培養되어 온 相互 友好信賴 關係를 鞏固히 하면서 未來 指向의 으로 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確認하였다.

- (2) 韓日 兩國는 中國經濟의 擡頭로 對中國 依存度가 深化되고, 一部 産業에서 産業의 空洞化 現象이 나타나고

있음을 指摘하였다. 이에 對해 兩國 經濟人은 서로 多樣的 對應過程에 關한 現狀과 課題를 檢討하고, 規制 改革 등에 依한 企業 및 投資環境의 改善, 技術革新 및 高附加價值化에 依한 競爭力 向上, 企業 自身の 體力 涵養 등이 重要하다는 점을 確認하였다.

- (3) 兩國 經濟人은 相互 直接投資의 環境 整備와 擴充, 貿易의 擴大均衡, 重層的인 人的·文化交流 增進의 重要性을 認識하면서 緊密化의 程度를 더욱 深化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再次 確認하였다.

- (4) 日本側으로부터 韓日 파트너십 強化를 위한 提言, 韓國側으로부터 革新 主導型 産業政策과 韓日經濟協力에 關한 說明, 2005年 日本國際博覽會協會로부터 國際博覽會「사랑·地球博覽會」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兩國 經濟人은 이에 對해 높은 關心을 表明하였다.

4. 各 分科會 및 全體會議에서의 提案 등에 關해 別添 事項에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는 來年에 韓國에서 開催 한다.

2004年 4月 23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金相廈
日本側 代表團 團長 瀨戶雄三

〈別 添〉

合 意 事 項

- (1) 「産業貿易會議」開催에 協力하는 件
- (2) 「訪日輸出促進團」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

하는 件

- (3)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에 協力하는 件
- (4) 「靑少年 交流事業」으로, 韓日 兩國의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고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및 韓日 高校生 交流에 對해 協力

하는 件

- (5) 中小企業 相互 補完 事業에 對해 協力하는 件
- (6) 其他, 韓日・日韓 兩協會의 合意下에 推進하는 事業에 協力하는 件

第37回 共同聲明(2005年)

第37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는 2005年 4月 14日, 15日 兩日間 大韓民國 서울에서 韓國側에서는 趙錫來 團長 等 145名, 日本側에서는 세토 유조(瀬戸 雄三) 團長 等 103名이 參席하여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書面에 의한 一般經過報告 後, 第6回 韓日産業貿易會議(2004年 11月, 韓國 慶州)에 대한 報告가 있었다.
2. 먼저 基調演說 等を 통해 兩國 經濟人은 世界經濟, 兩國經濟 및 兩國關係에 대해 다음과 같이 基本認識을 같이 하였다.

世界經濟는 原油價 急騰의 長期化와 美國의 쌍둥이赤子 擴大 및 成長鈍化 등의 리스크를 憂慮하는 見解도 있으나, 대체로 好調勢를 보이고 있다. 中國經濟도 財政 및 金融緊縮으로 成長率이 다소 鈍化되고 있어 軟着陸을 實現하고 있다.

한편 韓國經濟는 昨年에 前年對比 30%의 輸出增加를 記錄했음에도 불구하고 內需不振으로 業種 및 企業間 業績의 兩極化 等 때크로 指標와 體感景氣의 괴리현상을 보였지만 今年들어 回復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日本經濟는 昨年 後半 以後 調整局面이 繼續되었으나 設備投資가 好調勢를 持續하고 있고 個人消費도 살아나고 있으며, 今年 後半부터 回復軌道에 올라설 수 있다

록 民間次元 等の 努力이 持續되고 있다.

最近 東아시아 地域에서는 FTA 締結을 위한 움직임이 活潑해지고 있다. 兩國關係는 友好 및 協力이라는 關係가 아니라 21世紀의 戰略的 파트너십을 指向하는 關係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韓日FTA는 이를 위한 象徴적인 첫걸음이다. 兩國의 經濟活動을 圓滑하게 하고 兩國의 構造改革을 促進하는 包括的이며 水準높은 FTA의 年度內 締結이 강력히 要求된다.

지난 40年間の 兩國經濟는 兩國企業이 서로 윈윈하는 協力關係를 構築해 왔으며 最近에는 新産業分野에서도 多樣하고 實質적인 協력이 活潑히 推進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向後的 兩國는 FTA 締結을 통해 調和롭고 衡平性있는 分業構造를 構築함으로써 東아시아 共存共榮의 循環고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韓國側에서는 日本側이 農水産物分野의 自由化 水準을 世界 第 2의 經濟大國에 걸맞게 力量을 發揮해 줄 것을 期待하며, 이를 위하여 兩國는 진지한 論議를 持續・強化해 나가야 하고, 兩國 經濟人들도 自發적으로 貢獻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兩國 經濟人을 包含하는 모든 關係者들은 事實에 입각해 옳고 그름을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가리면서 未來指向의인 率直한 對話로 諸般問題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3. 各 分科會와 全體會議에서의 意見發表와 討論을 통해 兩國 經濟人은 다음 事項에 대해 意見一致를 보았다.

- (1) 東아시아에서의 커뮤니티 形成 및 安定과 繁榮을 위한 努力이 推進되는 가운데 兩國은 '東아시아공동체'를 指向하면서 그 모델이 될 包括的인 韓日FTA 체결을 위하여 經濟人과 政府가 하나가 되어 加一層 努力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韓日産業間 協力을 活性化·成熟化시켜야 하며 韓日鐵鋼 등 素材産業의 成功事例를 살려 兩國産業·企業間的 理解促進과 信賴를 構築해 가는 努力이 加一層 要望된다.
- (2) 部品 및 素材産業은 兩國 製造業의 國際競爭力을 지탱하는 産業이며 이 分野에서도 兩國은 'Defacto Standard(事實上標準)'을 主導해 나갈 必要性이 있다. 最近 이 分野에서 兩國의 戰略的 提携事例가 增加하고 있는 점을 評價하고, 自由로운 經濟活動을 沮害하는 既存의 規定이나 制度의 改革을 위해 兩國 經濟人은 加一層 智慧를 모아야 한다.
- (3) 最近 韓國內 日本大衆文化의 擴散과 日本內 韓流 畧에서 볼 수 있듯이 兩國 國民의 次元의 關心과 親近感이 擴散되고 있는 점을 매우 肯定的으로 評價하였다. 이를 토대로 東北亞地域의 協力과 地域共通의 利益을 이끌어내기 위한 體系的인 文化協力 促進을 위한 틀을 構成하는 것에 큰 關心이 表明되었다. 潛在的 成長率이 높은 文化産業分野에서 向後 새로운 兩國間 連帶가 크게 期待된다.
- (4) 最近 金浦-하네다間 定期 차타편 등 兩

國間的 旅客 및 物流의 高速交通體系 整備 및 擴充은 兩國關係를 增進시키는 役割을 하고 있으며, 觀光, 레저開發, 情報 서비스 등에서의 交流를 促進하기 위한 短期滞在비자 免除 등 人的交流條件 緩和에 兩國은 加一層 努力해야 한다.

- (5) 韓日兩國은 東北아시아에서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라는 價値觀을 共有해 온 自由友邦이자 同盟關係의 運命的인 이웃으로서 友好協力增進과 相互信賴를 쌓아 왔다. 最近 浮上한 兩國間的 政治·外交의인 葛藤이 友好的인 韓日關係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이 憂慮되므로, 兩國政府가 이에 未來指向의인 觀點에서 냉정히 對處할 것을 要望한다. 나아가 兩國 國民도 經濟·文化 등 非政治的인 면에서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해 全力을 다해 나갈 것을 呼訴하며 우리 兩國의 經濟人들이 役割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認識을 같이 하였다.

4. 兩國 經濟人들은 別添事項을 兩國協會 次元에서 推進하기로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은 來年에 日本에서 開催한다.

2005年 4月 15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趙 錫 來
日本側 代表團 團長 瀨戶 雄三

〈別 添〉

合 意 事 項

- (1) 包括的이며 水準높은 韓日FTA의 年度

- 內 締結을 위해 協力하는 件
- (2) '産業貿易會議' 開催에 協力하는 件
- (3) '訪日輸出促進團' (韓國商品商談會)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4)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協力하는 件
- (5) '靑少年交流事業' 으로서 韓日高校生交流에 대해 相互 協力하는 件
- (6) 兩國 中小企業의 '相互補完事業' 에 대하여 協力하는 件
- (7) 其他 韓日・日韓 兩協會 合意 下에 推進되는 事業에 協力하는 件

第38回 共同聲明(2006年)

第38回 韓日・日韓 經濟人會議는 2006年 5月 25日, 26日 이틀 동안 日本國 삿포로 (札幌)市에서 韓國側에서는 趙錫來 團長 等 133名, 日本側에서는 세토 유조(瀬戸 雄三) 團長 等 150名(삿포로(札幌)市の 企業家 18名 包含)이 參席하여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書面에 의한 一般經過報告後, 第7回 韓日産業貿易會議(2005年 11月, 日本國 京都)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이의 없이 承認되었다.
2. 먼저 基調演說 等を 통해 兩國 經濟人은 世界經濟, 兩國經濟 및 兩國關係에 대해 다음과 같이 基本認識을 같이 하였다.

世界經濟는 原油 等 國際商品價格의 急騰, 美國의 쌍둥이 赤字 擴大 및 成長 鈍化 等の 리스크를 憂慮하는 見解도 있지만, 總體의으로 힘찬 擴大 基調를 보이고 있다. 中國經濟도 調整局面을 맞고 있기는 하지만, 順調로운 推移를 보이고 있으며, 新興國家들의 經濟는 世界經濟의 牽引車 役割을 할 만큼 그 位相이 向上되고 있다.

日本經濟는 內需와 輸出, 企業部門과 家計部門의 均衡 있는 回復軌道를 확고히 하며 長期的인 擴大를 持續하고 있다. 엔화強勢와 金利引上 等 새로이 걱정되

는 要因도 있지만, 서서히 景氣는 成長段階에 進入하고 있다.

韓國經濟는 昨年 輸出이 3年 連續 두 자릿수 增加勢를 記錄하였으며 下半期부터는 內需도 回復基調로 돌아섰다. 今年 들어 急激한 원화 強勢가 持續되고 있으며, 美國의 金利動向, 中國 위안화 等の 變動要因은 排除할 수 없지만, 大幅의인 競爭力 弱화를 防止하기 위한 努力이 이어지고 있다.

東아시아 國家들은 最近 FTA 締結을 위한 움직임이 活潑하며, 昨年 12月 쿠알라룸푸르에서 開催된 「ASEAN+3 頂上會議」 및 「第1次 東아시아 頂上會議」에서 「東아시아共同體」實現을 향한 움직임이 始作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兩國 經濟人들은 包括의이며 水準 높은 韓日FTA 締結의 重要性和 必要性을 再確認하였다.

3. 各 分科會와 全體會議에서의 意見發表와 論議를 통해 兩國 經濟人은 다음 事項에 대해 意見を 같이 하였다.
 - (1) 刮目할 만한 經濟 發展을 이룩하고 있는 中國은, 東아시아의 共同體 形成 및 安定과 繁榮을 위한 努力이 推進되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고 있는 가운데 重要な 位置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韓·日·中 3個國은 貿易 投資 등에서 相互依存關係가 深化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韓日FTA의 早期 協議再開와 締結이 強力히 要望되며 兩國 經濟人들은 締結을 위해 계속 協調하고 加一層 努力해 나가야 한다.

- (2) 韓日兩國은 低出產高齡化와 젊은 층의 雇傭問題 등 社會 經濟의 變化에 迅速하게 對應하고, 새로운 成長 動力을 發掘하기 위한 兩國의 보다 더 緊密한 連帶強化가 要望된다.

人的資源과 關聯하여, 아시아 全體의 經濟發展과 活力維持로 이어지도록 秩序 있는 受容制度 構築과 보다 폭 넓은 緊密化를 위한 努力이 要求되고 있다. 勞動市場 開放에 그치지 않고 多様な 分野에서 스스로 끊임없는 自己改革이 必要하다.

- (3) 部品素材産業은 兩國 製造業의 國際競爭力을 지탱하는 産業이며 大規模의 合作, 技術提携 등 尖端分野의 未來指向의인 戰略的 提携가 最近 增加하고 있는 점을 높이 評價하며 이 分野에서의 加一層의 協力強化가 必要하다.

- (4) 서비스産業은 兩國 GDP의 約 50% 以上을 차지하며, 아시아의 中流層도 擴大되고 있어 成長의 여지가 크다. 이미 物流部門에서는 世界 貨物輸送의 절반 以上이 아시아를 軸으로 하여 展開되고 있다.

兩國의 交流는 最近의 '韓流 붐'에서 보여지듯이 文化的 側面에서 눈부신 바 있으며 文化 콘텐츠 産業에서는

情報通信 인프라, 人材 등 서로의 強點을 活用한 企業連帶가 始作되고 있다. 장차 醫療 福祉 서비스 등 多様な 서비스 分野에서 새로운 成長모델이 될 것으로 期待된다.

韓國과 北海道 各 都市間의 ICT(情報通信技術)企業交流, 航路·海路網의 整備 및 擴充과 觀光 레저 開發, 留學生 交流 등은 兩國 關係를 뒷받침하는 役割을 遂行하고 있으며 兩國 經濟人들은 이에 대해 높은 關心과 敬意를 表하였다.

- (5) 兩國 經濟人들은 未來指向의인 새로운 韓日 파트너십의 原則 下에 兩國 經濟人이 先頭에 서서 加一層의 友好增進에 노력키로 하였다.

4. 兩國 經濟人들은 別添 事項을 兩國 協會 次元에서 推進하기로 合意하였다.
5. 次期 會議는 來年 韓國에서 開催한다.

2006年 5月 26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趙 錫 來
日本側 代表團 團長 瀨戶 雄三

〈別 添〉

合 意 事 項

- (1) 包括的이며 水準 높은 韓日FTA 締結을 위해 持續的으로 協力하는 件
(2) 『韓日産業貿易會議』開催에 協力하는 件
(3) 『訪日輸出促進團 (韓國商品商談會)』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4) 兩國『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에 協力하는 件
- (5) 『靑少年交流事業』으로써 韓日高校生交流에 關해 相互協力하는 件
- (6) 兩國 中小企業의『相互補完事業』에 關해 協力하는 件
- (7) 次回부터 會議 名稱을 韓國側은『韓日經濟人會議』로, 日本側은『日韓經濟人會議』로 하는 件
- (8) 其他 韓日・日韓 兩協會의 合意 下에 推進되는 事業에 協力하는 件

第39回 共同聲明(2007年)

第39回 韓日經濟人會議가 2007年 4月 12日 및 13日 이틀 동안 大韓民國 釜山廣域市에서, 韓國側에서는 趙錫來 團長 等 197名(釜山廣域市 企業人 35名을 包含), 日本側에서는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團長 等 115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1. 一般經過報告 및 第8回 韓日産業貿易會議 (2006年 11月, 韓國 서울)에 대한 報告와 新産業貿易會議에 대한 提案은 異議 없이 承認되었다.
2. 開會式에서는 ‘東아시아 情勢變化와 韓日協力’을 主題로 兩國의 基調演說이 있었으며, 제1세션에서는 ‘東아시아의 浮上과 韓日協力 強化’, 제2세션에서는 ‘韓日兩國의 協力課題와 對應方案’이라는 主題 下에서 多樣한 主題 發表와 열띤 討論이 이루어졌다.
3. 이러한 基調演說과 제1세션 및 제2세션의 論議를 통해 兩國 經濟人들은 다음 事項에 대해 意見을 같이 하였다.
 - (1) 兩國 經濟人들은 韓日을 둘러싼 國際環境이 急激하게 變化하는 가운데 글로벌한 觀點에서 未來指向의 協力해 나가기로 合意하였다.

韓日 兩國의 經濟는 堅調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中國의 高度成長 等으로 인해 世界經濟에서 東北아시아의 비중이 擴大되고 있다는 점에 認識을 같이하였다.

日本經濟는 消費・輸出 및 民間設備投資를 中心으로 繼續해서 堅調한 움직임을 보이며 年間 약 2%의 實質經濟成長率을 維持하는 等, 長期間에 걸쳐 景氣擴張局面이 持續되고 있다. 韓國經濟도 輸出好調에 힘입어 5% 內외의 堅實한 成長을 持續하고 있으며, 海外投資 增大 등 글로벌화를 積極推進하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狀況을 背景으로 韓日 兩國間에 있어서 經濟의 상호 協力關係는 더욱 強化되어 가고 있다.

- (2) 이번 韓美 FTA 협상 妥結은 韓日 FTA와 韓日中 FTA, 나아가서는 東아시아 FTA 締結 論議를 촉발할 것이라는 點에 認識을 함께 하며, 兩國 經濟人들은 現在 中斷되어 있는 韓日 FTA 협상의 早速한 再開와 締結이 必要하다는 點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3) 韓日中 3國間の 貿易 및 投資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韓日中 投資協定에 대한 檢討가 進行되고 있어 그에 따라 東아시아 FTA構想에 관한 論議도 活潑해지고 있으므로 그 共同體 形成을 위한 基盤造成 및 研究에도 積極的으로 參加해 상호 協力하기로 合意하였다.

(4) 韓日 兩國은 貿易과 投資面에서 重要な 파트너로서 緊密한 協調를 지속하고 있으나 貿易과 投資面에서의 더한층의 擴大를 위해 課題를 解消해 나가기 위해서도 兩國經濟人이 더욱 努力할 必要가 있다는 점에 意見을 같이하였다.

貿易規模가 史上 最大值를 更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大規模 對日貿易赤字가 있는 問題나, 兩國間の 쌍방향 投資가 더욱 활발해 지도록 계속 投資環境 改善과 貿易障壁 除去를 위한 努力이 必要하다는 점에 認識을 같이 하였다.

(5) 韓日 兩國은 環境問題, 低出產·高齡化問題, 兩極化(隔差)問題 等 共通 課題를 안고 있다는 데 認識을 같이하였다. 向後 이들 課題를 解決하기 위해 經濟人들의 知識과 經驗을 共有하면서 서로 協調하기로 約束하였다. 특히 向後 地球環境問題에 대해서 韓日間에 協力하여 對應하기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6) 兩國 經濟人은 朝鮮通信使 派遣 再開 400周年에 해당하는 올해, 兩國의 友好關係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韓日 兩國 企業間の 交流 擴大는

물론 스포츠, 觀光, 文化面의 人的交流를 더욱 擴大하기 위해 함께 努力하기로 合意하였다.

4. 兩國 經濟人들은 別添 事項을 兩國 協會 次元에서 推進하기로 合意하였다.

5. 次期 會議는 來年 日本에서 開催한다.

2007年 4月 13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趙 錫 來
日本側 代表團 團長 飯島 英胤

〈別 添〉

合 意 事 項

- (1) 包括的이며 水準 높은 韓日FTA 締結의 重要性和 必要性을 再確認하고 韓日 FTA의 早速한 체결을 促求하는 件
- (2) 兩國間 貿易不均衡의 是正 및 쌍방향의 投資 活性化에 協力하는 件
- (3) 『韓日新産業貿易會議』開催에 協力하는 件
- (4)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高校生交流에 關係 相互 協力하는 件
- (5) 兩國 中小企業의 『相互補完事業』에 關係 協力하는 件
- (6) 『韓日비즈니스交流商談會』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7)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에 協力하는 件
- (8) 其他 韓日·日韓 兩協會의 合意 下에 推進되는 事業에 協力하는 件

第40回 共同聲明(2008年)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08년 5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일본국 치바현 우라야스시(千葉縣浦安市)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조석래 단장 등 136명, 일본 측에서는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英胤) 단장 등 164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다.

1.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 관한 보고·제안 및 한일 양협회의 일반 활동 보고는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2. 제40회 경제인회의를 기념하여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및 일본국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총리대신께서 메시지를 보내 주셨고 또한 양국 내빈으로부터 축사가 있었다. 기념강연에서는 한일 경제인에 의한 무역, 투자 등의 경제제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과 한일 FTA/EPA 교섭 재개·체결에 대한 기대가 표명되었다.
3. 전체회의 제1세션에서는 「한일 기술경쟁력강화와 경제제후」, 제2세션에서는 「한일 간 균형 있는 무역확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양국 전문가에 의한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테마들은 지난 4월 개최된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무역과 투자의 균형 있는 확대와 그 실현을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다.
4. 이러한 제1세션 및 제2세션에서의 논의를 통해 양국 경제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인식과 의견을 같이 했다.

(1) 양국 경제인은 자원부족국가인 한일

양국이 지속성 있는 경제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술개발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2) 특히 독창적 연구·기술 개발력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관학 연구개발의 연계와 국가의 일관된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연구기술자 육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
- (3) 또한 급속히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국제경제 속에서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기술면에서의 가일층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 인력 교류가 중요하다.
- (4)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중요해 지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양국이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5) 2007년 한국의 대일무역적자가 299억 달러에 달하는 등 무역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한일 양측은 무역확대를 도모하며, 무역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 (6) 향후 한일 간의 균형 있는 무역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분야에 대한 협력과 대한 투자확대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사항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첫째, 한국의 투자환경이 노사관계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향후 가일층의 투자환경개선과 함께 일본기업도 대한 투자확대에 협력할 것

둘째, 한국은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노력하며, 일본은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

셋째, 한국기업은 일본시장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해 일본시장의 니즈에 맞는 제품개발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본 측은 수입환경 개선에 가일층 노력할 것

5.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FTA/EPA 교섭 재개와 조기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에 양국 경제인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6. 양국 경제인은 별첨 사항을 양국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7. 차기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08年 5月 16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趙 錫 來
日本側 代表團 團長 飯島 英胤

〈별 첨〉

합 의 사 항

- (1)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FTA/EPA 교섭 재개와 조기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에 협력하는 건
- (2) 양국 간 균형있는 무역확대와 양방향 투자확대에 협력하는 건
- (3) 「한일신산업무역회의」사업에 협력하는 건
- (4) 「청소년교류사업」으로 한일고교생교류 및 학생미래회의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건
- (5) 양국 「산업기술협력재단」의 한일비즈니스·인재교류 사업에 협력하는 건
- (6) 기타 한일·일한 양협회의 합의하에 추진되는 사업에 협력하는 건

第41回 共同聲明(2009年)

제41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09년 4월 16일, 17일 이틀동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조석래(趙錫來) 단장 등 188명, 일본 측에서는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英胤) 단장 등 124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다. 양국 경제인들은 유례없는 세계 동시 금융위기와 경제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더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함

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1. 양국 경제인은 한일 정상외교 강화, 문화적·인적 교류 및 투자 확대 등 최근의 한일 우호증진의 분위기를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다양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양국 경제인은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과 아시아가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점에 유

넘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강하게 연계하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한 연대를 통해 역내 경제 활성화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3. 양국 경제인은 그간 정제되었던 한일 FTA/EPA 교섭이 작년 실무협의를 재개됨을 환영하고 한일 FTA/EPA가 상호 경제협력의 확대·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한일 FTA/EPA의 조속한 진전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로 하였다.
4. 양국 경제인은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함에 있어 자국기업의 보호를 강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경고한 G-20정상회의의 합의 내용을 높이 평가하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저지를 위하여 국제무대에서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5. 양국 경제인은 한일 양국 간의 무역·투자 활성화가 양국 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은 고용·노동, 지적재산권, 금융, 기업정의, 관광, 인재교류 등의 분야에서, 일본은 부품소재산업, 비관세조치, 정부구매, 상호인증 등의 분야에서 개선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추후 상세한 개선사항, 제언을 정리하여 양국 정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대한 요망사항을 정리하고

그 처리를 양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6. 한일 양국은 최근의 한일 수출입 감소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무역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한일무역불균형을 개선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7. 작년 4월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어제 KINTEX에서 개막된 ‘한일 부품소재조달·공급전시회’ 및 ‘한국 비즈니스 미션’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대한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장래의 한국산 제품의 대일 수출 공헌과 양국 간의 산업협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8. 양국 경제인은 이번 회의를 통해 환경과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한 대처가 세계적인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며, 더욱이 사업 기회로서의 큰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자원 순환형 사회구축과 기후 변화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9. 차기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0년 일본 오카야마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보다 실효성이 높은 회의가 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2009년 4월 17일

韓國側 代表團 團長 趙 錫 來
日本側 代表團 團長 飯島 英胤

第42回 共同聲明(2010年)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0년 4월 15일, 16일 이틀동안 일본국 오카야마시(岡山市)에서 한국 측으로 부터 조석래(趙錫來) 단장 등 110명, 일본 측에서는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단장 등 146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다.

제작년의 세계 동시 불황에 의해 경기는 크게 침체하였지만, 각국의 협조에 의한 금융안정화책과 각국의 경기대책에 의해, 한 시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경기는 회복기조에 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도 보다 신속하게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것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세계불황에서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에는 아직도 강력함이 모자라 더 한층의 대책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 최근 1년간,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과제를 신산업무역회의에서 채택하여 구체적인 과제해결을 향한 활발한 토의를 거듭해 왔다. 그 토의결과를 경제인회의에 자문하고, 시책의 확실한 실현을 향해 노력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향후 양국의 정부에 대한 제언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그 제언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루어져 온 양국 제언분을 포함하여 그 처리를 양국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 (1) 금년의 일본 측 테마인 「한일 간의 인재교류 활성화」에서는 한일의 고급 인재를 주요 대상으로 자격 공유화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양국 간의 인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제도와 추진방안을 정비하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또한, 한국 측의 테마인 「부품소재산업의 한일협력 강화」에서는 한일협력 체제에 장애가 되는 애로 사항의 해소를 목표로 한일 간 무역불균형의 개선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였다.

- (2) 작년 경제인회의에서 토의되었던 「한일 간 무역·투자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작년 양국 간에 합의하여 인식을 같이 했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과 협력 체제」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그 후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추가 수정한 제언서가 양해를 받았다.
2. 이번 경제인회의에서는, 아시아가 세계경제시장에서 크게 성장하여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공유되었다. 그 가운데 아시아의 높은 경제성장이 기존의 세계경제에서의 수요·공급의 구조와 물류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음을 인식하였는데, 한일 양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향후 양국이 각각의 특색을 살려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공고히 하여 대등한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한일 간의 FTA/EPA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조기실현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 21세기를 향한 저탄소화 사회의 실현은 세계 공통의 과제이며, 특히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

이 일치하였다. 양국 경제인은 이 명제를 국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면으로부터 과제에 대처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태양광 발전으로 대표되는 각종 비화석(非化石) 신 에너지의 개발과, 스마트 그리드를 응용해 소비 에너지의 최대 효율을 지향하는 시스템이나 기술의 개발은, 양국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라는 것을 인식하여 폭넓은 논의를 실시하였다. 향후의

과제로서 한일 양국은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향해 폭넓게 향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관계자 간에 공유하였다.

4. 다음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1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年 4月 16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趙 錫 來
日本側 代表團 團長 飯島 英胤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실적

韓日經濟人會議 開催実績

年度・期間 回次・地域 参加者	主 要 會 議 内 容
'69年 1. 27~29 第1回 韓國 서울 1. 韓國側 - 金 容 完 團長等 114名 2. 日本側 - 植村 甲午郎 團長等 26名	1. 合同會議 會議規約이 審議되어 採擇됨. 2. 講演 - 宋仁相 韓國經濟開發協會 會長「韓國經濟의 現況과 展望」 - 廣田 精一郎 東洋레이온 社長「日本에서의 國際競爭力 強化 方案과 施策」 3. 分科會 - 經濟協力分科會 - 産業・技術分科會 - 貿易分科會 4. 共同聲明 - 韓國의 安定과 繁榮이 日本의 安定과 繁榮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意見을 같이 함. - 韓日經濟協力에서 韓國側이 經濟協力の 模範이 될 수 있도록 積極的인 자세로 轉換할 것을 강력히 要望, 日本側은 情報베이스 經濟協力の 條件緩和에 노력함과 동시에 相互利益에 입각하여 民間投資促進을 圖謀하고, 韓國側은 投資環境整備에 계속 노력하는 것으로 意見의 一致를 봄. 5. 合意事項 - 會議의 合意事項中 政府에 要望事項을 양쪽 모두에 傳達 - 그 結果 租稅協定締結이 實現되었고 韓國側에서는 合作投資條件의 緩和와 輸入制限이 緩和되었으며, 日本側에서는 일부 關稅의 減免 등이 實現되었음.
'70年 5. 15~16 第2回 日本 東京 1. 韓國側 - 李 活 團長等 48名 2. 日本側 - 植村 甲午郎 團長等 54名	1. 講演 - 土光 敏夫 東京芝浦電氣 社長「1970年代의 日本의 産業政策」 2. 分科會 - 經濟協力分科會 - 産業・技術分科會 - 貿易分科會 3. 共同聲明 - 合作投資의 促進을 강조함과 同時에 프로젝트주위에 관련해 推進力이 될 少数 專門家에 의한 共同機構를 설치할 것을 韓國側이 提案, 日本側이 實現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약속함.
'71年 3. 2~4 第3回 韓國 서울 1. 韓國側 - 李 活 團長等 64名 2. 日本側 - 植村 甲午郎 團長等 26名	1. 2회와 마찬가지로 3分科會로 나뉘어져 討議, 그 결과를 全體會議에서 報告하고 共同聲明을 採擇 2. 3日間の 會議을 통해 韓國側이 強調한 것은 韓國經濟가 바야흐로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임. - 韓國側은 韓日合作 投資金融會社의 設立을 期待, 合意가 成立하였으나 결국 實現되지 못하였음.

年度・期間 回次・地域 參加者	主 要 會 議 內 容
1972年 3. 2~4 第4回 日本 東京 1. 韓國側 - 朴 斗 秉 團長等 22名 2. 日本側 - 植村 甲午郎 團長等 36名	1. 第3次 5個年計劃 達成을 위한 所要外資調達計劃은 韓國側이 설명하고 日本側에 重點的인 協力を 要求한 것에 대해, 日本側에서는 工業所有權의 保護協定과 通商航海條約의 早期締結 등 종례의 懸案事項에 대해 韓國側에 各별한 配慮를 要求
1973年 3. 6~8 第5回 韓國 서울 1. 韓國側 - 朴 斗 秉 團長等 55名 2. 日本側 - 植村 甲午郎 團長等 35名	1. 日本으로부터 韓國産業長期開發計劃調査團을 韓國에 派遣하여 重化學工業의 각 프로젝트에 관한 調査를 實施하며 訪日하는 韓國의 關係擔當官에 대한 說明會를 開催 2. 關稅制度의 改善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恩 차관, 浦港綜合製鐵所 第2期 工事に 대한 수은특별융자 등 經濟協力を 合意
1974年 2. 28~3. 2 第6回 日本 東京 1. 韓國側 - 金 容 完 團長等 50名 2. 日本側 - 植村 甲午郎 團長等 47名	1. 韓國의 重化學工業開發計劃 推進에 관련되는 民間經濟協력에 대한 協議를 중심으로 資本協力, 産業技術提携, 貿易擴大, 貿易均衡에 대해서도 民間經濟人의 입장에서 서로 討議를 進行 - 具體的으로서 重化學工業專門委員會 設置 合意, 企業誘致協議會 設置 合意
1975年 6. 11~13 第7回 韓國 서울 1. 韓國側 - 金 容 完 團長等 65名 2. 日本側 - 植村 甲午郎 團長等 29名	1. 主要會議 內容 - 한일무역박람회 - 日本의 對한수입제한 地域에 대한 韓國側의 반항과 日本側에 대한 要望 - 韓國의 重化學工業開發과 日本의 協力 - 資本協力
1976年 3. 9~11 第8回 日本 東京 1. 韓國側 - 朴 忠 勳 團長等 45名 2. 日本側 - 植村 甲午郎 團長等 48名	1. 韓國의 長期經濟開發에 대한 資本, 技術協力の 條件에 대해서 쌍방의 意見의 一致를 보고, 새로운 次元에서 對應하는 體制를 構築함에 있어 아주 유익했고, 兩國貿易도 擴大均衡의 선에 부합되는 民間立場에서 相互利益을 조절하는 적절한 措置를 강구하기로 努力하는 등 활발한 意見交換이 있었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실적

年 度・期 間 回 次・地 域 參 加 者	主 要 會 議 內 容
1977年 3. 10~12 第9回 韓國 서울 1. 韓國側 - 朴 忠 勳 團長等 79名 2. 日本側 - 日高 輝 團長等 28名	1. 技術移轉 등에 관한 産業技術問題 2. 貿易擴大均衡方策과 第3國市場에 대한 協力 輸出 등 貿易問題 3. 海運, 觀光協力 등 활발한 討議가 있었음
1978年 3. 7~9 第10回 日本 東京 1. 韓國側 - 太 完 善 團長等 40名 2. 日本側 - 日高 輝 團長等 44名	1. 韓日兩國간의 經濟協力, 産業技術, 貿易 등 3分野를 中心議題로 民間立場에서 各協 力을 促進시키기 위해 필요한 措置를 둘러싸고 具體的인 討議를 함 - 韓國側은 具體的으로 개개품목마다 關稅率의 引下와 特惠關稅制度의 改善, 非關 稅障壁의 撤廢를 요구하는 要望書를 作成해 日本側에 提示 2. 共同聲明에서 日本側은 貿易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해 日本政府에 대해 積極的으로 建議하기로 約束
1979年 4. 2~4 第11回 韓國 서울 1. 韓國側 - 金 基 鐸 團長等 65名 2. 日本側 - 日高 輝 團長等 39名	1. 더욱 深化되는 兩國間 貿易의 언밸런스가 兩國 友好關係의 沮害要因이 될지도 모 른다는 점을 쌍방이 認識, 그 改善에 努力하기로 合意
1980年 3. 17~19 第12回 日本 東京 1. 韓國側 - 鄭 周 永 團長等 44名 2. 日本側 - 日高 輝 團長等 54名	1. 環太平洋連帶構想에 대한 兩國의 對應, 長期大型技術開發에 대한 共同研究 등 폭 넓은 視野로 課題를 檢討함과 동시에 懸案問題인 貿易不均衡 시정에 대해서는 日 本側에서 對韓輸入促進 등에 관한 使節團의 派遣을 正式化 하였음
1981年 6. 10~12 第13回 韓國 서울 1. 韓國側 - 朴 泰 俊 團長等 102名 2. 日本側 - 日高 輝 團長等 66名	1. 韓日兩國 모두 政治的 安全狀況이 오래 계속되는 가운데 韓國經濟의 재정립을 도 모하고 中長期에 걸쳐 兩國 經濟交流의 協力策을 具體化함과 동시에 1980年代의 韓日經濟協力を 모색 2. 具體的으로는 環太平洋經濟共同體構想과 各 專門委員會의 위상에 대해 討議

年度・期間 回次・地域 參加者	主 要 會 議 內 容
1982年 4. 13~15 第14回 日本 東京 1. 韓國側 - 朴 泰 俊 團長等 60名 2. 日本側 - 日高 輝 團長等 67名	1. 韓國의 第5次 經濟開發計劃을 중심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經濟協力の 具體化에 관해서 檢討
1983年 4. 6~8 第15回 韓國 서울 1. 韓國側 - 朴 泰 俊 團長等 97名 2. 日本側 - 日高 輝 團長等 71名	1. 經濟協力 및 産業技術協力の 擴大와 貿易分野에서의 兩國協력이 兩國의 건전한 經濟發展만이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는 環太平洋 諸國의 繁榮에 寄與하는 점에 兩國 代表團은 그 認識을 함께 했음
1984年 4. 5~7 第16回 日本 京都 1. 韓國側 - 朴 泰 俊 團長等 63名 2. 日本側 - 日高 輝 團長等 88名	1. 韓日國交正常化 이래 20年間の 實績을 토대로 民間의 經濟, 文化 各 方面에 걸쳐 交流, 意識있는 相互協力 및 國民의基盤에 입각한 相互理解를 加一層 進展시켜야 할 것이라고 認識하고 끈기있는 努力에 의한 韓日共榮을 위한 經濟協力 關係를 構築하는 것이 東아시아의 安定, 나아가서는 世界의 經濟生活과 平和에 寄與한다고 하는 認識에 一致
1985年 4. 10~12 第17回 韓國 慶州 1. 韓國側 - 朴 泰 俊 團長等 77名 2. 日本側 - 日高 輝 團長等 68名	1. 貿易의 擴大均衡, 技術協力の 促進을 도모함과 더불어 汎國民의 信賴關係를 強化하기 위한 人的交流를 深化하는 점에도 意見의 一致 2. 國交正常化 20週年을 맞이하여 記念事業으로서 兩國間 經濟交流에 관해서 심포지움을 서울에서 開催하는 외에, 靑少年交流의 實施 등에 관해서 檢討
1986年 4. 9~11 第18回 日本 東京 1. 韓國側 - 朴 泰 俊 團長等 64名 2. 日本側 - 杉浦 敏介 團長等 82名	1. 韓國의 第6次 經濟社會開發 5個年計劃의 중점시책에 따르면서 投資・技術協力の 促進, 貿易의 擴大均衡, 相互信賴 強化를 위한 人的交流 등, 建設의이고 積極的으로 推進해 가는 것을 決定했음 - 第6次 經濟社會開發 5個年計劃 調査團의 對韓派遣, 訪日投資誘致團의 派遣, 部品開發協力미션의 交流, 訪日輸出促進團의 派遣, 靑少年交流, 서울올림픽에 대한 協力 등의 具體的인 討議가 이루어졌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실적

年度・期間 回次・地域 參加者	主 要 發 表 內 容	
	來賓・顧問人事 및 基調演說 / 合意事項	主 題 發 表
1987年 4. 20~22 第19回 韓國 濟州道 1. 韓國側 - 朴泰俊 團長等 116名 2. 日本側 - 杉浦敏介 團長等 110名	1. 來賓祝辭 - 蔣炳九 濟州道 知事 - 梁井新一 駐韓日本國大使 2. 顧問人事 - 具滋暻 全經聯 會長 - 齋藤英四郎 經團連 會長 3. 基調演說 - 鄭周永 現代그룹 名譽會長 「國際通貨秩序 再編成下에서의 韓日 經濟協力」 - 三村庸平 日本貿易會 會長 「日本の 經濟構造調整의 現狀과 展望」 4. 合意事項 - 訪日投資誘致團의 派遣 - 訪日輸出促進團의 派遣(8回) - 訪日部品開發協力mission - 訪韓中小企業協力mission 受容 - 靑少年交流의 派遣 및 受容 - 韓日技術移轉세미나 開催 5. 其他 - 韓日財界同好人俱樂部 結成	1. 第1合同分科會(投資・産業技術協力分野) - 金都亨 産業研究院 日本室長 「日本の 海外投資戰略과 韓日産業協力方向」 - 大永勇作 富士通(株) 常務取締役 「日韓投資・技術協力の 發展을 爲하여」 2. 第2合同分科會(貿易分野) - 李宣基 韓國貿易協會 副會長 「韓日兩國間 貿易擴大 및 環境改善方向에 對하여」 - 外山弘 住友商事(株) 副社長 「最近의 日本貿易構造의 變化와 日韓貿易」 3. 第3合同分科會(經濟協力 全般) - 中井善夫 川崎重工業(株) 常務取締役 「訪韓國部品開發協力mission 活動報告」
1988年 4. 7~ 9 第20回 日本 金澤 1. 韓國側 - 朴泰俊 團長等 97名 2. 日本側 - 杉浦敏介 團長等 134名	1. 來賓祝辭 - 李奎浩 駐日韓國大使 - 中西陽一 石川縣 知事 2. 顧問人事 - 具滋暻 全經聯 會長 - 齋藤英四郎 經團連 會長 3. 基調演說 - 宋仁相 東洋나일론(株) 會長 「環太平洋世紀의 到來를 爲한 아시아NICs와 日本의 役割」 - 前川春雄 前日本銀行 總裁 「韓日經濟를 둘러싼 諸問題」	1. 第1合同分科會(貿易增進分野) - 吳鎮龍 日海研究所 前任研究委員 「韓中間 交易展望과 日本의 役割」 - 武内俊夫 (株)도멘 會長 「日本の 貿易構造 및 産業構造의 變化와 그 展望」 2. 第2合同分科會(投資・技術協力分野) - 金都亨 産業研究院 日本室長 「韓日産業協力の 基本方向과 對策」 - 外保富夫 三菱自動車(株) 相談役 「投資・技術協力の 方向 - 事例로서의 三菱自動車・現代自動車關係의 現況에 대하여」

年度・期間 回次・地域 參加者	主 要 發 表 內 容	
	來賓・顧問人事 및 基調演說 / 合意事項	主 題 發 表
	<p>4. 合意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日輸出促進團(5回) - 訪韓中小企業協力mission - 訪日部品開發協力mission - 靑少年交流 등을 派遣 및 擴大와 進展에 對應할 수 있는 專門委員會의 活動方向에 關해 檢討를 시작한다. <p>5. 其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表彰式(日韓機械翻譯시스템 共同開發) - 「2000年代에 있어서의 韓日經濟 協力の 方向」 共同研究 成果報告 	<p>3. 第3合同分科會(經濟・一般協力分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 哲 守 經濟企劃院 第1協力官 「最近의 韓國經濟動向과 新政府의 經濟政策 方向」 - 松澤 卓二 (株)富士銀行 相談役 「日本の 經濟構造調整과 韓國・아시아NICs」
<p>1989年 4. 25~26</p> <p>第21回 韓國 서울</p> <p>1. 韓國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朴龍學 團長等 131名 <p>2. 日本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杉浦 敏介 團長等 135名 	<p>1. 來賓祝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趙 淳 副總理 兼 經濟企劃院長官 - 梁井 新一 駐韓日本國大使 <p>2. 顧問人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劉 彰 順 全經聯 會長 - 齋藤 英四郎 經團連 會長 <p>3. 基調演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申 秉 鉉 全國銀行聯合會 會長 「새로운 次元의 韓日經濟協력과 그 重要性」 - 松澤 卓二 (株)富士銀行 相談役 「國際經濟社會에 있어서의 日・韓國의 經濟關係」 <p>4. 合意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日輸出促進團 派遣 (5回) - 訪日部品開發協力mission - 靑少年交流 등을 派遣 및 受容하고 - 韓日中堅經營人交流 促進團의 派遣 및 受容을 檢討 - 專門委員會를 改正하는 件 	<p>1. 第1合同分科會(貿易增進分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朴 態 緒 三星物産(株) 副社長 「아시아・太平洋地域의 經濟協력과 北方交易」 - 八尋 俊邦 三井物産(株) 會長 「地域의 經濟統合의 進展과 日韓兩國의 姿勢」 <p>2. 第2合同分科會(投資・技術協力分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 塚 謙 雙龍洋灰工業(株) 社長 「太平洋時代의 韓日技術協力」 - 渡里 杉一郎 (株)東芝 相談役 「投資・技術協力の 方向」 <p>3. 第3合同分科會(經濟協力・一般協力全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 康 斗 經濟企劃院 對外經濟調整室 第1協力官 「韓國經濟의 最近 動向과 向後課題」 - 羽倉 信也 (株)第一勸業銀行 取締役 相談役 「金融의 自由化・國際化와 金融市場의 開放」 - 堤 清二 西武세존그룹 代表 「日本流通業界의 韓國商品에 對한 對應」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실적

年度・期間 回次・地域 參加者	主 要 發 表 內 容	
	來賓・顧問人事 및 基調演說 / 合意事項	主 題 發 表
1990年 4. 16~18 第22回 日本 神戸 1. 韓國側 - 朴 龍 學 團長等 102名 2. 日本側 - 梅田 善司 團長等 160名	1. 來賓祝辭 - 李 源 京 駐日韓國大使 - 具原 俊民 兵庫縣 知事 2. 顧問人事 - 劉 彰 順 全經聯 會長 - 齋藤 英四郎 經團連 會長 3. 基調演說 - 具 本 湖 韓國開發研究院 院長 「1990年代 亞・太地域의 經濟展望과 韓日協力課題」 - 宇野 收 (社)關西經濟連合會 會長 「大變革期에 있어서 日本의 役割과 今後的 日韓關係」 4. 合意事項 - 産業一般委員會 發足 - 訪日輸出促進團 派遣 (5回) - 訪日部品開發協力및선 - 靑少年交流 等을 派遣 및 受容하고, - 韓日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 派遣 및 受容	1. 第1合同分科會(貿易增進分野) - 黃 仁 政 國際民間經濟協議會 (IPECK) 副會長 「北方經濟交流와 韓・日間 協力課題」 - 伊藤 正 住友商事(株) 社長 「今後的 國際貿易에 있어서 日韓兩國의 役割」 - 三浦 守 (株)東急百貨店 社長 「日本の 消費動向과 韓國製品에의 期待」 2. 第2合同分科會(投資・技術協力分野) - 裴 洵 勳 大宇造船工業(株) 社長 「韓日 技術協力 方案」 - 山本 卓眞 富士通(株) 社長 「國際政勢變化와 日韓投資・技術協力の 今後」 - 中井 善夫 川崎重工業(株) 副社長 「當社에 있어서 日韓技術協力の 現狀과 今後的 動向」 3. 第3合同分科會(經濟協力・一般分野) - 李 正 雨 高麗證券(株) 社長 「韓國金融産業의 現況과 課題」 - 古賀 憲介 新日本製鐵(株) 副社長 「日本經濟에 있어서 勞使問題의 變遷과 展望」 - 依田 直 東京全力(株) 副社長 「地球環境問題에의 對應」